공업지역, "대도시보다 살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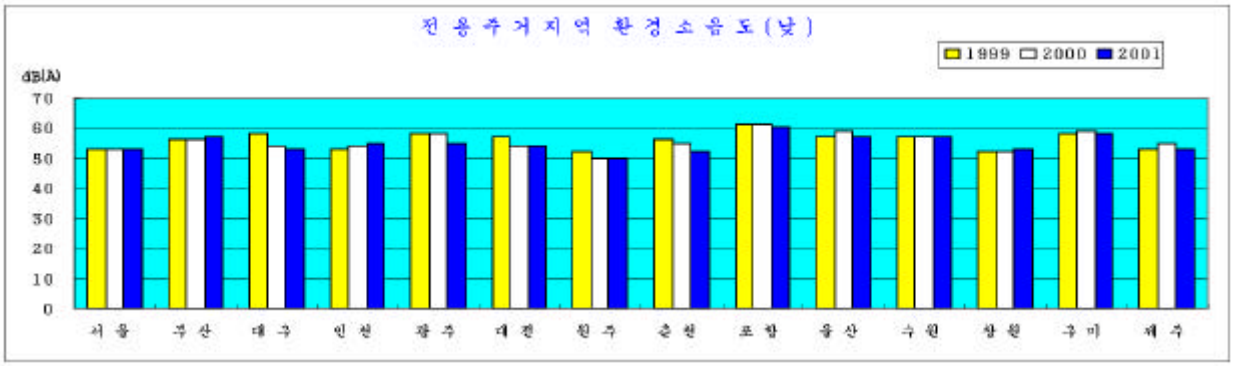
환경부, 2001년 환경소음도 분석 … 주거·도로 모두 낮아

환경부가 2001년 환경소음도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에 따라 25개 도시별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용주거지역은 낮 소음도가 원주, 강릉, 마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밤 소음도는 마산을 제외한 24개 도시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거지역의 낮 소음도는 25개 도시 중 12개 도시(48%)가 초과하고, 밤 소음도 21개 도시(84%)가 초과했다. 상업지역은 낮 소음도가 부천을 제외한 전 도시 기준 이내였고, 밤 소음도는 서울 등 16개 도시는 달성했으나 인천 등 9개 도시는 초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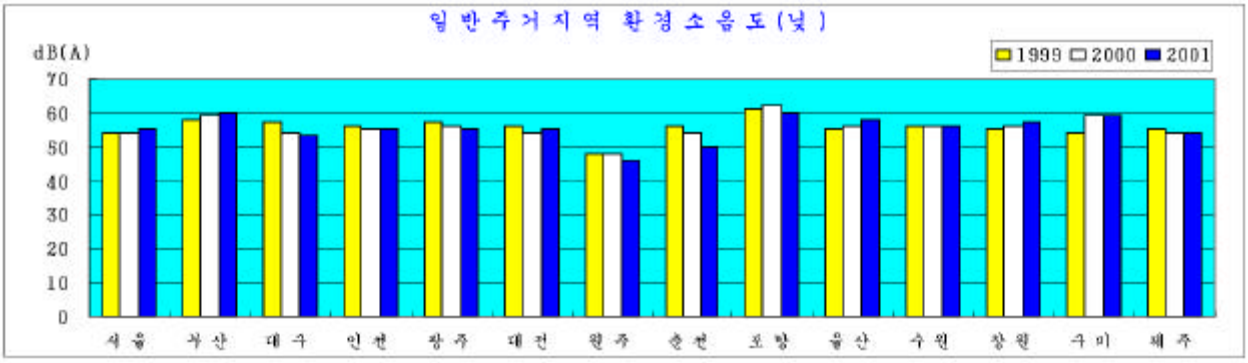
공업지역은 전 도시의 낮과 밤 소음도가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서울, 목포, 여수, 순천은 측정지점이 없어 제외됐다.

도로변지역의 환경소음도 추이도 일반지역 등 전지역이 비슷한 추세로 차량증가 차량과속,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전용주거지역의 소음도는 40-60dB(A), 낮 50dB, 밤40dB(A)로 나타났는데 낮은 25개 도시 중 원주, 강릉, 마산만 달성했고 서울 등 22개 도시는 2-10dB를 초과했다. 밤은 마산을 제외한 24개 도시 모두 2-16dB(A) 초과했다.

최근 3년간 대구, 광주, 포항, 춘천, 구미, 제주는 개선된 반면 부산, 인천, 성남, 창원은 다소 악화됐고, 서울 등은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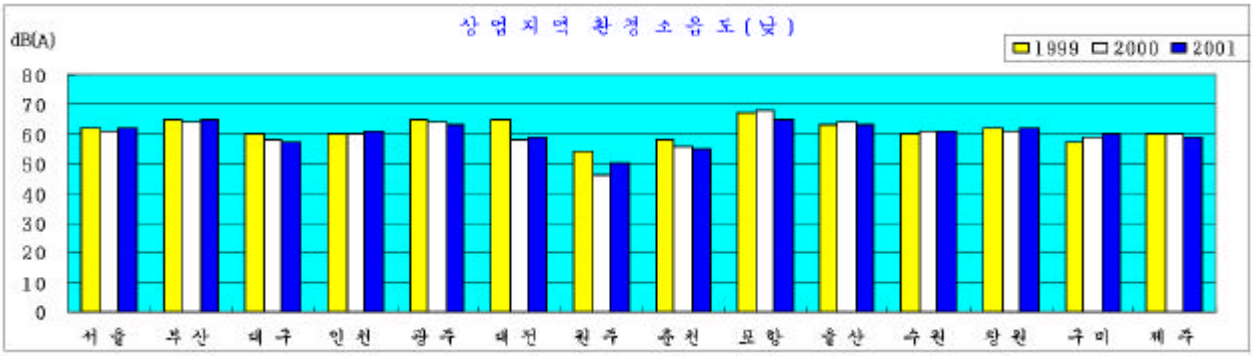
일반주거지역의 소음도 범위는 40-60dB(A), 낮 55dB, 밤 45dB(A)로 낮에는 25개 도시 중 서울 등 12개 도시는 달성됐으나, 13개 도시는 1-5dB 초과됐다. 밤에는 원주 등 4개 도시만 달성됐고, 21개 도시는 1-10dB 초

과됐다.

최근 3년간 대구, 광주, 진주, 춘천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창원은 다소 악화됐으며, 인천 등은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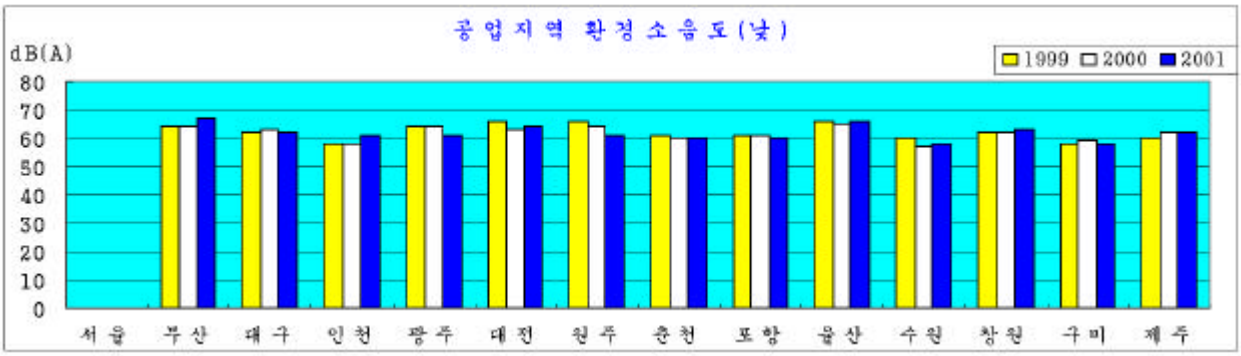
상업지역의 소음도 범위는 45-66dB(A), 낮 65dB, 밤 55dB(A)로 나타났는데, 낮에는 25개 도시 중 부천을 제외한 24개 도시가 달성됐고, 밤에는 서울 등 16개 도시가 달성된 반면, 인천 등 9개 도시는 초과했다.

최근 3년간은 대구, 광주, 춘천, 포항, 청주가 개선된 반면, 구미, 성남, 인천, 창원 등은 다소 악화됐고, 제주 등은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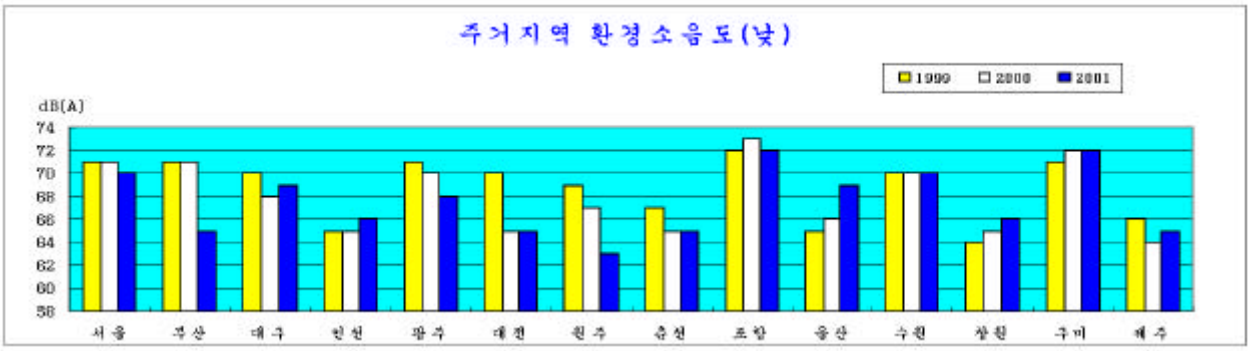


공업지역의 소음도 범위는 40-69dB(A), 낮 70dB, 밤 65dB(A)로 25개 도시 모두 기준을 달성했다. 다만, 서울, 목포, 여수, 순천은 측정지점이 없아 제외됐다.

최근 3년간에는 원주 등 2개 도시가 개선된 반면, 인천 등 5개 도시는 다소 악화됐고, 다른 도시는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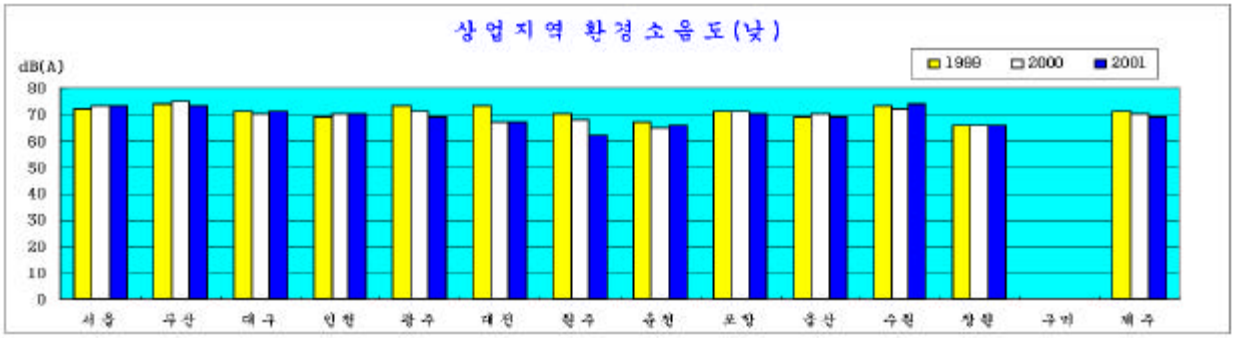


도로변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소음도 범위가 52-72dB(A), 낮 65dB, 밤 55dB(A)로 나타났는데 낮에는 대전 등 6개 도시가 달성된 반면, 서울 등 19개 도시는 1-7dB 초과했다. 밤에는 진주를 제외한 전 도시가 1-14dB 초과했는데 구미는 밤 소음도가 69dB(A)로 최고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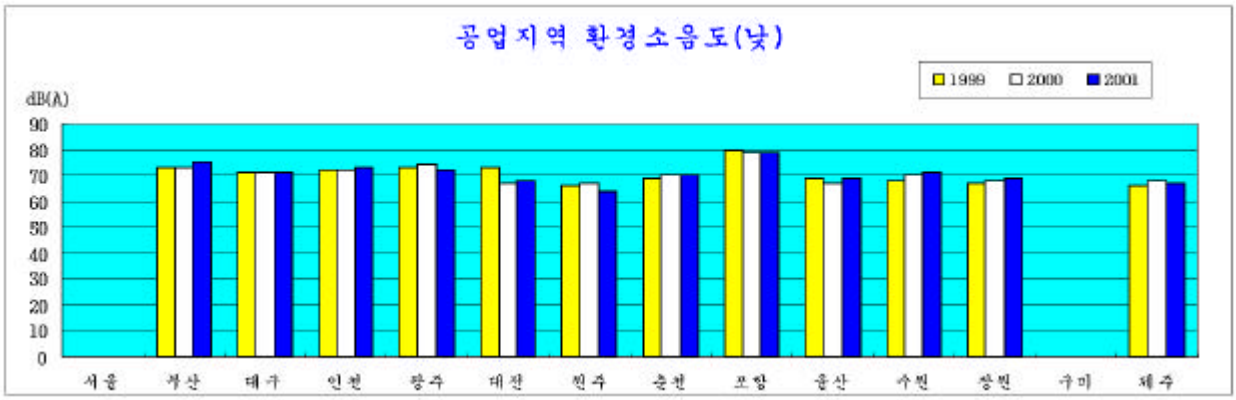
최근 3년 동안에는 원주, 서울, 부산, 광주가 개선됐고 대구, 인천, 울산, 창원, 마산, 제주는 다소 악화됐으며

다른 도시는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상업지역의 도로주변 소음도 범위는 56-74dB(A), 낮 70dB, 밤 60dB(A)로 낮에는 광주 등 17개 도시가 달성된 반면, 서울 등 7개 도시는 1-4dB 초과됐다. 밤에는 대전 등 6개 도시는 달성된 반면, 서울 등 18개 도시는 1-10dB 초과됐다.

최근 3년 동안에는 부산, 광주, 원주, 강릉, 제주가 개선될 반면, 수원, 마산은 다소 악화됐고, 다른 도시는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공업지역의 도로주변 소음도 범위는 55-79dB(A), 낮 75dB, 밤 70dB(A)로 포항을 제외한 도시 모두가 환경기준 이내를 나타냈다. 서울, 목포, 여수, 순천, 구미는 측정지점 없다.

최근 3년 동안에는 광주, 원주, 청주가 개선된 반면 부산, 인천, 울산, 수원, 창원은 다소 악화됐고, 다른 도시는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5>